



의정부주보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조 막달레나 (1806-1839)

어려서 어머니 이 가타리나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한 조 막달레나는 외교인 친척들의 반대로 7~8세 무렵부터 교우 집안인 외가로 옮겨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다. 18세 되던 해 혼담이 오가자, 그는 동정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혼인을 피해 한양으로 올라와 5~6년을 지냈다. 그 뒤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외교인 어린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죽어 가는 아이들에게 대세를 주는 등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다.

그러던 중 1838년 말 박해가 일어나자 어머니와 두 동생과 함께 한양으로 이주하였는데, 결국 이듬해 1839년 6월 체포되었다. 포도청에서 한 차례 신문과 주리를 당하고 갇히게 된 그는 3개월간 옥살이 끝에 염병으로 옥에서 순교하였다. 그의 나이 33세였다.

성화_정상섭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대림 제3주일 · 자선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이사 61,1-2 7.10-11

화답송 루카 1,46L-48.49-50.53-54(☉ 이사 61,10 7 참조)

☉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 굽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이 스라엘을 돌보셨네. ☉

제2독서 1테살 5,16-24

복음 환호송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복음 요한 1,6-8.19-28

영성체송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예언자 아모스



농경과 목축이 함께 이뤄지는 트코아 지역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8킬로미터가량 내려가면 트코아 유적이 나옵니다. 트코아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예언자 아모스의 고향입니다(아모 1,1). 2역대 11,6에선 트코아가 이스라엘의 남왕국 성읍인 베들레헴과 나란히 언급되는데, 이는 아모스가 남왕국 출신임을 암시합니다. 트코아는 서쪽으로 경작지, 동쪽으로 광야 곧 목초지를 끼고 있어, 아모스가 목축도 하고 농사도 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아모 7,14 내용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활동한 장소는 북왕국입니다. 이는 비록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하느님 눈에는 남북왕국이 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는 예로보암 2세 시대(기원전 789-748년 재위 추정)에 활동하는데요(아모 1,1), 이스라엘의 최성기(最盛期)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다면 아모스가 활동한 때는 이스라엘의 남북왕국이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대입니다. 북왕국을 자주 침공하던 아람은 아시리아에게 제압당했고, 아시리아는 이후 무력한 임금들이 재위하며 힘을 잃습니다. 이집트도 그 당시에는 큰 위협이 아니었기에, 남북왕국은 평화롭게 번영하면서 영토도 다윗-솔로몬 시대만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번영이 상류층의 재산 축재로만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부를 거머쥔 상류층은 호화로운 건물을 짓고 사치를 즐겼는데(3,15; 6,4-6 등), 이런 부유함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의 발굴 과정에서 상아 장식을 과하게 많이 단 건물들이 다수 출토된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

류층은 경신례에도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4,4-5; 5,21-23). 하느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부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유해질수록 더욱 욕심을 내며 뇌물 수수와 약자 착취를 서슴지 않았는데(5,11-12; 8,4-6 등), 이에 아모스는 나라의 멸망을 예감하고 그들을 바로잡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형식만 남은 경신례를 꾸짖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 곧 율법의 핵심인 공정과 정의를 실천해야 주님의 날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5,4-7.18-25).

북왕국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 내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자신들에게 복만 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는 세상 만민이 하느님 눈에 다 똑같다고 선언하며(9,7), 오히려 하느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죄의 대가를 더 비싸게 치를 거라고 경고합니다(3,2). 왜냐하면 계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은 타민족과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계약의 의무를 저버린 죄값까지 짊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곧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루카 12,48)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주님께서 사회적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당신 도구로 쓰신 인물입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하느님도 더 찾기 쉬워질 듯하지만, 정반대되는 모습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모스 이후 2,8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으니, 우리는 그가 전달한 신탁에서 교훈을 찾고 성찰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⑭
- 국경선 위에서 실종되는 인간(이민)의 존엄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이민(移民)은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북미주나 유럽에 비하면 이민의 수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결혼이민자나 이주노동자를 과거에 비해 어렵지 않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국가·지역·개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민을 어떤 사고(思考)와 행동 방식으로 만나고 있나요? 회칙 「모든 형제들」은 이민을 막으려는 추세(37-41항)를 보편적 형제애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운 가운데 하나로 봅니다.

물론 회칙은 서구 문화에 매료되어 비현실적 기대를 안고 떠나는 이민과 그들의 약점을 악용하는 범죄, 이민 자신은 물론 그 가족이 겪는 이산(離散)의 아픔 그리고 가장 활기차고 진취적인 구성원을 잃어버리는 공동체의 파편화(破片化) 등을 이유로 타국으로 이주하지 않을 권리, 곧 자기 나라에 남을 권리도 재확인합니다(38항). 하지만 회칙이 성찰하는 이민은 전쟁, 박해, 자연적 재난에서 탈출한 이민(난민)과 “더 나은 장래를 꿈꾸며 그 꿈을 성취할 조건들” 곧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회를 찾는 ‘정당한’ 이민입니다(37항).

회칙은 “이민이 우리 세계의 장래에 중추적 역할을” 맡겠지만, 오늘날 나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합니다(40항).

첫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정권들과 일부 자유주의 경제적 접근법은 “너무 많은 사람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추상적이며 지지하기도 어려운” 논거를 내세워 이민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37항). 둘째, 이민의 유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사이의 “두려움과 경계”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조장하여 퍼뜨리는 외국인 혐오 심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합니다(39항). 셋째, 모든 시민사회의 기반이 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책임 의식의 상실 역시 이민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추세에서는, 이민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에 참여할 자격(권리)이 있고, 똑같은 내재적 존엄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구속(救贖)에 있어 작인(作因)이어야 한다는 진실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앞서 지적한 사고 및 행동 방식으로 이민을 “덜 가치 있고, 덜 중요하며,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다면, 이는 신앙의 깊은 확신을 배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태생, 인종, 종교와 관계없이 양도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형제적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보다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더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9항). ☺



우리 본당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

배현우 베드로 | 신곡2동 성당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기도는 일상이다. 우리 주변에는 감사드릴 일과 이루어지길 원하는 일이 항상 있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마 그 느낌은 특별할 것이다.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2020년 7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작되었다. 우리 본당도 마스크를 안 쓰면 성당 입장이 불가능해졌고 성당 입구에 있던 성수가 치워졌으며, 미사 중에 성가도 생략됐다. 미사 외 모임이나 활동은 일체 금지되었다.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가득했다. 그러다 작년 6월 초 거리두기가 해제되자 미사 때 성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썰렁했던 커피자판기 주변에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해 봄부터 본당 신부님이 '전 신자 가구 방문 축복기도'를 시작하신 것이다. 코로

나를 모르고 살던 예전에는 신부님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가정 미사를 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 먼 옛이야기가 된 터였다.

주임신부님은 협력 신부님과 두 분 수녀님, 신자 대표 몇 분과 함께 구역별로 신자 가정을 방문하여 현관문 앞에 선 채로 그 집에 사는 분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바치셨다. 방문한 가정의 신자들이 부

담 갖지 않도록 문밖에서 드린 기도다. 그리고 축복기도를 했다는 표시로 나중에 구역장이나 반장을 통하여 '스티커'를 건넸다. 스티커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가정을 축복합니다.” 천주교 의정부교구 신곡2동 성당>이라 쓰여 있었다. 신부님께서 왔다 가신 표시였던 거다.

축복기도를 가벼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하느님께서 하실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 기도를 통해 냉담하던 이가 성당에 나오고, 미사참례가 부진했던 이는 눈에 띄게 열심히 활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대리자이신 신부님을 통하여 각 가정에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셨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말이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과 다르기에, 지금은 무엇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된다.

축복기도가 다 끝이 났다는 신부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지금까지 나는 계속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실 특별한 은총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본당 교우들이 집집마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우리 본당 소속 교우라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다. ☪





교구장
동정

17(주일)	견진성사 - 신원동 성당
19(화)	교구청회의 - 교구청 회의실
	부제·신학생 방학인사 - 주교좌 사적지 성당
20(수)	군중후원회 송년 감사미사 - 주교좌 의정부 성당

이번 주 성경 읽기

12/17(주일)~23(토) : 루카 1,46-66

이 구절을 한 주간 반복해서 읽고 쓰고 묵상합니다. 12/30(토) 한 달간 읽은 내용에 대한 해설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채널



교구
소식

두루미 생명 평화 여행 [철원-연천-파주]

일시 1/10(수)~11(목) [1박 2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누구나 (선착순 40명) 회비 9만원 (청소년 7만원)
 접수 031-941-2766, www.pu2046.kr 민족화해센터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12/29(금)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에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성명 강창일 스테파노, 이기연 요한, 윤정숙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청년센터 <에피파니아> 2024 미사 안내

Sleeping with Bread Mass (빵 미사) 일시 1/6(토)부터 매주(토) 18시
 Family Mass with crying baby (가족 미사) 일시 1/7(주일)부터 매(주일) 11시
 문의 031-901-1460, 850-1456 청소년사목국

미사 안내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ometax.go.kr)
 필요 서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당 사무실에 비치, 신규 1회 제출)
 발급 시기 2024년 1월 15일경 발급 예정
 ※ 동의서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미제출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
 ※ 동의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분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제출 동의서 효력 유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제출자는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1회 제출)
 ※ 교무금 책정자 변경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국세청으로 이관되기에 변경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담화] 제40회 자선 주일

제40회 자선 주일을 맞이하여, 주교회의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미사 · 피정 ▶▶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 피정

1차: 1/30(화)~31(수), 2차: 2/20(화)~21(수)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 피정비: 10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2/2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주제: 성전에서 솟아 흐르는 물
강사: 장혜승 마리아
문의: 010-2127-0032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1/5(금) 13시~ 7(주일) 16시
대상: 중, 고, 대학, 미혼 젊은이 / 회비: 10만원
장소: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중강당
문의: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성바로말수도회 성소자 대피정

날짜: 1/12(금)~14(주일) / 회비: 3만원
대상: 33세 이하 미혼 여성
문의: 010-7251-1908 데레사 수녀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 - 고해성사, 상담

일시: 12/18(월) 13시~16:30 (말씀, 찬양)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가정선교회 새해맞이 1월 피정

성가정 영성 피정: 1/3(수)
강사: 한철호 신부, 맹경순 아나운서,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1/6(토)
강사: 박현민 신부
치유, 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1/20(토)
강사: 윤창호 신부
시간: 12:30~17시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골롬반 겨울청년 피정

일시: 1/13(토) 10시~17시
장소: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대상: 23~39세 신자 / 회비: 1만원
접수: bit.ly/ColumbanRetreat01 (1/7 주일까지)
문의: 010-3817-0567 골롬반평신도선교사센터

초정 성령회관 - 은혜의 밤 철야 기도

일시: 12/22(금), 29(금), 1/2(화) [1박 2일 피정]
강사: 양창우 신부, 장영숙, 김완식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문의: 043-213-9103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피정

예수마음기도 8박9일: 12/26(토)~1/3(수)
이나시오영신수련 8박9일: 12/26(토)~1/3(수)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10-9099-2337, www.jesumaum.org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 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12/27(수)~29(금)
성경완독: 1/5(금)~13(토), 2/16(금)~24(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교육 · 모집 ▶▶

양주백석 성당 사무직원 모집

대상: 세례 받은 교우
사무행정 / 회계업무 / PC사용 가능자
업무: 본당 사무, 회계, 각종 행사 지원,
본당 시설 관리 등
접수: 12/31(주일) 우체국 소인까지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양주백석 성당 지휘자 모집

음악 관련 전공자 또는 성가대(합창) 지휘 경험 있는 분 (우대)
서류: 봉사신청서(교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적사본
접수: 12/31(주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문의: 031-829-0490 양주백석 성당

서강대학교 게임 &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스페인어/이태리어 강좌 1~2월 겨울학기
개강일: 1/2(화)~3(수) 강좌별로 상이함
수강료: 32만원
수업: 주 2회(문법, 회화) 8주, 총 30시간
왕초보~고급반 단계별 맞춤형 교육
문의: 02-705-8718, scec.sogang.ac.kr

햇살사목센터 부모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

일시: 1/12(금) 19:30~21:30
주제: 예수 마리아 요셉의 가정으로 가는 구체적인 방법
-3H (Healthy·Happy·Holy Family)
강사: 조재연 신부, 천진아 연구원
접수: 1/7(주일)까지, 방법: 줌(ZOOM)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6(화)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 1년 과정, 주3일 (신청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보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파주 엑소더스 '에투알'(etoile, 별) 봉사자 모집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청소년성장 프로그램
2024년 2월부터 매주(토) 10시~16시
내용: 학업 이외의 청소년 성장활동
(해외 봉사, 야외 체력, 악기, 댄스 등)
조건: 20세 이상 55세 미만의 관심자
문의: 031-948-8105~6 파주 엑소더스 (금, 토 휴무)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4 신입생 정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3.7% 총복권 1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1/3(수)~6(토)
문의: 043-270-0100, 0119

2024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상반기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 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
교육: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원서접수: 1/8(월)~26(금) 전화문의 요망
장소: 최양업홀 (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 www.casm.co.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피나음악원

2024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정시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 여 평신도
자격: 고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접수: 1/3(수)~6(토) 인터넷접수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 1월 개강, 6주 과정

월요 피정(무료) - 관상과 함께 하는 묵주기도와 미사
 일시: 매주(월) 14시~16시 / 강사: 이근상 신부
 1801년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 신유박해를 바라보는 여섯가지 시선
 일시: 매주(화) 14시~16시 / 강사: 소진형 박사
 구약성경 아카데미 - 귀환시대
 일시: 매주(화) 19:30~21시 / 강사: 주원준 박사
 각 6주/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신청: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 (13일 560만원)
 3/15(금) 이스라엘, 요르단 (12일 550만원 KE)
 4/10(수)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 (13일 540만원 KE)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13일 560만원 KE)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6(금)~2/6(화) 이집트, 요르단 (515만원)
 2/16(금)~27(화) 튀르키예, 그리스 (440만원)
 3/1(금)~11(월) 스페인남부, 파티마 (500만원)
 3/4(월)~15(금)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 (435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꼬메스 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 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제주 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 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한라산눈꽃산행: 1/20(토)~22(월)
 1/26(금)~28(주일), 2/2(금)~4(주일)
 2/17(토)~19(월), 2/25(주일)~27(화)
 성지순례(추차도): 3/21(목)~24(주일)
 접수: 064-756-6009, 02-773-1463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2/19(월)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1일)
 4/1(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4/2(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17(수) 이탈리아 완전 일주 (11일)
 5/20(월) 튀르키예(터키) 그리스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619호
 ※ 세부 일정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눈꽃산행: 1/6(토)~8(월), 1/12(금)~14(주일)
 1/19(금)~21(주일), 1/27(토)~29(월)
 2/3(토)~5(월), 2/14(수)~16(금)
 2/23(금)~25(주일), 2/27(화)~29(목)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6/7(금)~15(토) 이스라엘 (8박 9일, 465만원)
 문의: 010-7374-3217

성베네딕도수도원 전례, 탐방 & 성지순례

날짜: 2/17(토)~19(월) 수도원, 대구
 3/1(금)~4(월) 수도원, 부산, 마산
 3/14(목)~17(주일) 전주, 광주
 4/20(토)~24(수) 울릉도, 독도, 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대형 버스)
 성지순례: 5/15(수)~28(화) 독일수도원, 바티칸, 이탈리아(수비아코)
 문의: 010-3807-1784 라이시돌

DIocese of Uijeongbu

대건카리타스

“하느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한국천주교회는 1984년부터 대림 제3주일을 「자선주일」로 정해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가진 것을 나누는 자선을 실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교구는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를 통해 지역 사회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봉헌되는 자선주일 특별 헌금은 대건카리타스의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대건카리타스는 주요사업으로 <100원의 행복충전소> <온누리 난방비지원> <긴급구호지원> <요한학자금 지원> <청소년 결연후원사업>을 진행하며,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등 20개 복지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 받는 이들에 대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구 인준 사도직 단체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림 시기 둘째 부분

대림 시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 부분은 대림 제1주일부터 12월 16일까지고, 둘째 부분은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주님 성탄 대축일에 가까운 만큼 전례의 내용 또한 성탄과 더욱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그리고 전례일 명칭은 ‘대림 제4주간 월요일’이 아니라 ‘12월 18일’ 같이 해당 날짜로 지칭됩니다. 대림 시기 둘째 부분에 봉독되는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7일	마태 1,1-17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12월 18일	마태 1,18-24	요셉에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
12월 19일	루카 1,5-25	세례자 요한의 출생 예고
12월 20일	루카 1,26-38	마리아에게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고
12월 21일	루카 1,39-45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
12월 22일	루카 1,46-56	마리아의 노래
12월 23일	루카 1,57-66	세례자 요한의 출생
12월 24일	루카 1,67-79	즈카르야의 노래

그런데 위의 날짜가 주일과 겹칠 때는 ‘대림 제3주일’ 또는 ‘대림 제4주일’ 전례로 거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의 경우엔 ‘12월 17일’ 대신 ‘대림 제3주일’ 전례를, ‘12월 24일’ 대신 ‘대림 제4주일’ 전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대림 시기 둘째 부분에는 미사 중 감사송도 ‘대림 감사송 1’에서 ‘대림 감사송 2’로 바뀝니다. 전례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구세주의 탄생과 더욱 밀접해집니다:

“모든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고
 동정 성모님께서서는 극진한 사랑으로 그분을 품어 주셨으며
 요한은 오실 분을 미리 알려주고
 이미 와 계신 그분을 가리켜 주었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깨어 기도하고 기쁘게 찬미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셨나이다.”

이 기간에는, 매우 중대한 사목적 필요나 선익이 없는 한, 기원 미사나 신심 미사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시간 전례(성무일도)에서는 초대송 후렴, 찬미가, 시편 기도의 후렴과 저녁 기도가 대림 시기 둘째 부분의 고유한 것으로 바뀝니다. 또한 모든 전례에서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의 연주는 절제하여, 성탄의 기쁨이 너무 일찍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대림 시기의 절정을 맞이하며 전례에 담긴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합시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h3>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

전례

▣ 주님 성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24일(일)		12월 25일 (월)
주일 미사	오전 9시,11시	오전 11시
성탄 성야	오후 8시	

※ 주님 성탄 대축일 오전 9시 미사는 없습니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안내

12월 31일(일)		1월 1일(월)
주일 미사	오전 9시,11시	오전 9시, 11시
1월 1일 저녁 미사	오후 5시	

※ 12월 24일과 31일 주일 전날인 23일과 30일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는 오후 5시에 예전과 같이 봉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선 주일 2차 헌금

오늘은 자선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본당공지

▣ 성탄 판공 성사

성탄 판공 성사는 성탄 대축일 전까지 매 미사 전, 후에 보시고 성사표는 고해실 바구니에 넣으시거나 본당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영명 축일 영적 예물

12월 25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이며 행주 성당 주임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영적 예물 카드를 작성하여 구역 반장님께 전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12월04일 ~ 12월10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8건	1,370,000원
주 일 헌 금		925,000원

▣ 감사헌금

김아영 100,000원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2월 17일	김남일(미카엘), 배현숙(헬레나)
12월 24일	김순곤(라자로), 이경예(마르타)